

비판적 독해

비판적 독해란?

비판적 독해란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독해 방향이다. 이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쉽게 생각해보자 일단 평가를 하려면 무엇이있어야할까? 바로, "평가의 대상"이다. 그 평가의 대상은 주로 인문지문이니 특정 사상가의 견해 또는 어떤 학파의 입장이 될 수 있겠다. 누구 평가의 대상으로 잡으면 좋냐면, 바로 맨 처음 나온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잡아라! 그래야 글을 읽는 데에 수월할 것이다.

그럼 이제 평가의 대상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린 다 들었으니 평가해야지!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평가의 자격이 없다. 왜? 공인되지 않는 일개 수험생에 불가하지 않는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절대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text 그 자체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독해이다.)

그러면 우린 지문에 나와있는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또 다른 사상가 둘째, 글쓴이(사상가의 이름을 안박히는 경우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글의 전개방식이 달라진다.

또 다른 사상가가 나올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주장을 앞에 제시하지만, 사상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미괄식으로 글의 끝부분에 자신의 주장이 전개된다. (ex 22수능 헤겔지문(나), 23 9평 아도르노지문 (나))

즉 전개방식에 따라 읽어야 할 태도가 달라진다. 두괄식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앞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지만(수능 글의 대부분이 두괄식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읽으면 된다.) 미괄식으로 나온다면, (꼭 글을 다 읽고 요약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드시 15초 정도 스탑하고 그동안 어떤 빌드업으로 마지막으로 모이는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그 다음 평가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봐야할거 아닌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점을 찾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차이점을 찾고, 수정/보완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점 차이점을 둘 다 찾으세요!

여기까지가 비판적 독해의 큰 틀이다

그 다음 비판적 독해를 **거시적으로 읽는 방법**

일단 지난 사실적 독해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화두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화두는 항상 : 대립하는 지점이다.

(cf. 예외적으로 역사지문이 나온다면 통시적 전개에서의 변화가 화두이며, 사상가가 한명나오는 지문은 그 사상가의 견해와 근거가 화두이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상 사상가 두 명 이상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1000원에 팔고 싶고, B라는 사람이 물건을 500원에 사고 싶어하여 둘이 갈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립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바로 가격이다. 즉 **대립하는 지점이라 함은, 상위개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은,

비판적 독해는 다른 글들과 다르게, 논설문이다. 논설문이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장이나오고 그 주장을 설득해야한다. 그런데, 주장만 제시한다면 과연 설득이 될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계속 구체화 할 것이다. 이때 구체화는 절대로 같은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맥락상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한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1. 어휘력이든, 2. 문장구조 로 파악하여 같은 말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명심해라 한 번한 기출은 제발 한번에 끝내자 시간없다 ㅇㅋ?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 (가) 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 · 종교 ·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 · 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가)에 따라 직관 · 표상 ·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정립, 반정립)가 조화로운 통일(종합)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이 지문은 사실 첫 문단을 누가 잘 읽었느냐에 따라, 글의 난도가 확달라진다. 우선, 첫 부분부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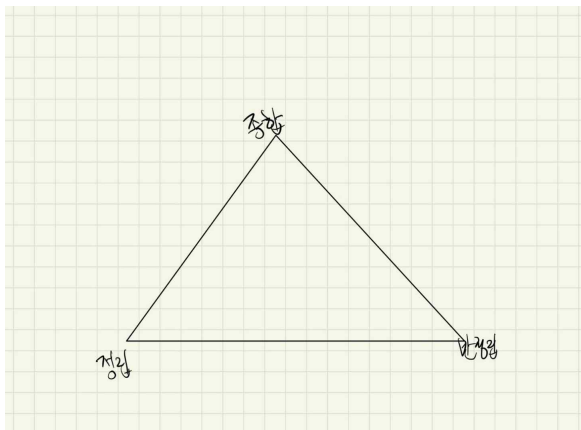
미시적 독해 tip : 명사 뒤에 ,나. 는 '즉'이라는 뜻이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랑 정립 반정립 종합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 변증법을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여기서 두 범주는 어휘적이 센스로 위의 정립과 반정립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왜? 글은 내가 위로 읽혀야 한다고 했잖아)가 조화로운 통일(종합이겠지 어휘적인 센스로?)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특징'이라는 단어이다.

미시적 독해 tip : 특징, 특성 이런 단어들은 그냥 단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사용할 정보라는 뜻이다.

즉 저 구조는 밑에서 한 번 이상 사용할 정보임을 인지하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그려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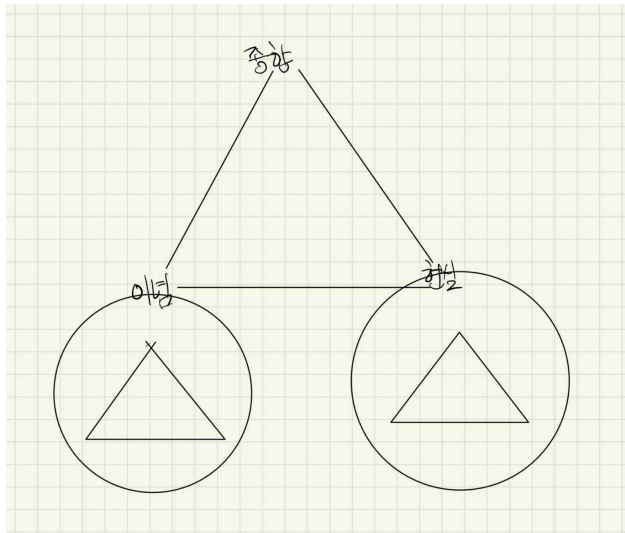


그 다음 문장이 험이다. 그러나 내가 알려준 비판적 독해에서의 “같은 말 찾기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라는 스킬을 기억하고 있다면 저 문장에서 문장구조가 같은 것들이 보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저 문장을 읽었을 때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라는 문장의 뜻을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걸 평

가원도 알기에 '즉'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뒷문장에 부연 설명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뒷문장에서 보조사 '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문장구조의 유사성으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방식 =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 =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로 독해가 될 것이다. (여전히 말 뜻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정도만 독해가 된다면 너무나도 오케이이다.)



그래서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큰 삼각형) 이 두 차원의 원리가 드러나는 방식도(안에 작은 삼각형들이 그려지겠군 이라고 읽으면 됨)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까지 독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문제에 안나온다고? 사후적인 이야기다 나오면 어쩌게? 항상 여러분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문제의 난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아닌가? 그러니 120점짜리 공부를 해라 100점에 안주하지 말고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삼각형)**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⑥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이념)**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첫문단에서 사전작업으로 저 삼각형을 그리는 작업을 했다면 2문단의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정의관계를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껄끄러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우선 헤겔은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한다고 하였으니, 삼각형을 그리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함관계가 나온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정신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영역이다. 지금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단어가 헛갈린다 그 정도이며, 너 네가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서이다. 포기하지말고 묶어라. 제발
그럼 아까 이념을 첫문단에서는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고 했던 것까지 생각나

세계의 근원적 질서=절대적 진리

까지 될 것이다.

미시적 독해 tip : A라는 B 라는 정의 문장구조가 나오면 A를 묶어라 그 문장에서 핵심은 B인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절대정신은 세가지 형식에 따라 구분된다고 한다. 우리 사실적 독해 배웠잖아? 구분이 나오면 반드시 기준을 보라! 기준이 바로 세가지 형식이다! 그럼 이 세가지 형식이 뭘까라는 의문을 갖고 넘어가라.

그래놓고 뭐 직관, 표상, 사유가 바로 그 세가지 형식임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나오니 이런 것들은 정의 잘 보도록!

그래놓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이 세가지 형태"라는 지시어이다. 반드시 지시어나 오면 원래 단어로 바꾸기! (첫 글에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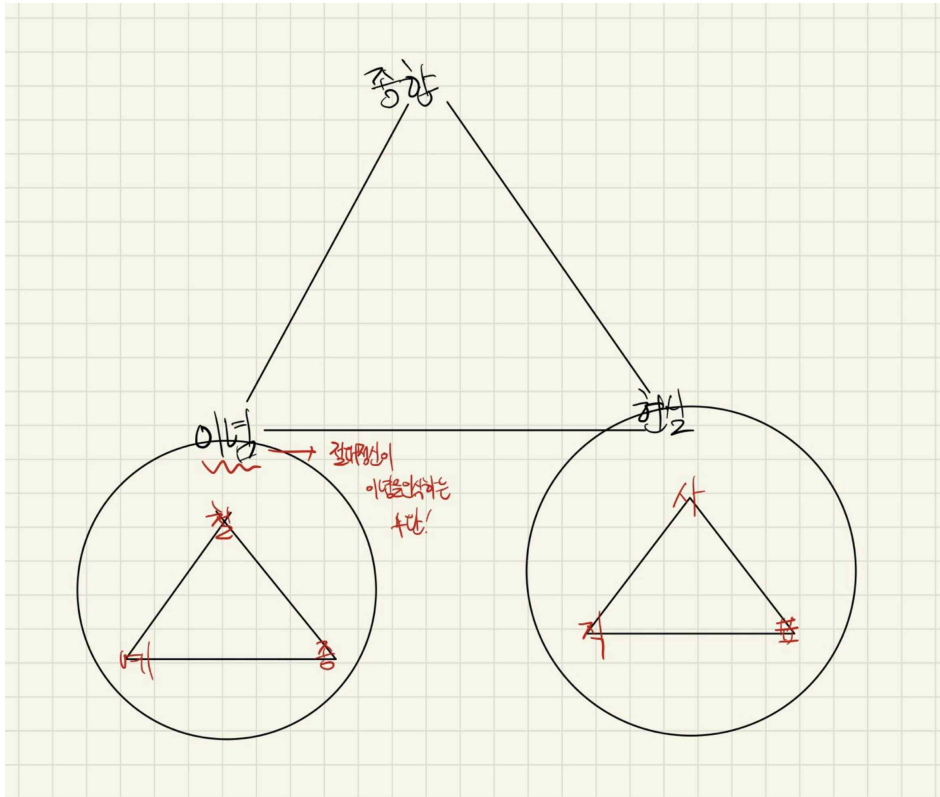
이 세가지 형태 =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라고 착각하지 말렴)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게 예술), 표상하는 절대정신(이게 종교), 사유하는 절대정신(이게 철학)이다.

각각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서대로 배치된다. 또한, 절대정신의 세가지 형태가 예술 종교 철학이었음을 인지하자 일부러 평가원에서 추상화 시킨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를 봤을 때 단순히 모인다고 생각하지말고 변증법적 체계성 안에서 읽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삼각형의 꼭대기라는 것을 인지하자.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사고를 한다면 아마 예술 종교 철학이 이념 삼각형을 이루니 추측으로 직관 표상 사유가 현실 삼각형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고? 예술 종교 철학이 이념을 인식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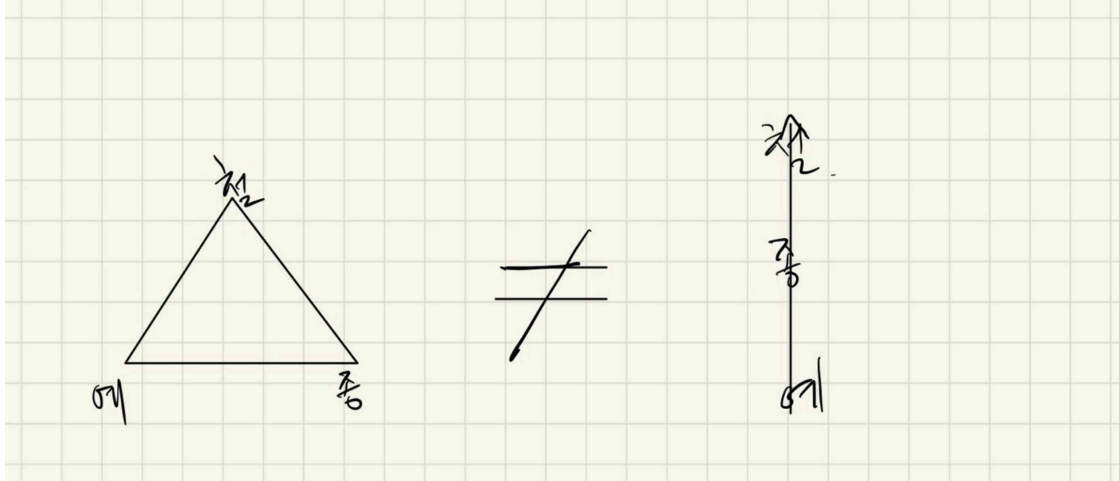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직관, 표상, 사유를 떠올려야한다. 근데 그것때문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이념이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것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지금 이 문단을 읽는 목표가 형식간의 차이로 인해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짐을 인지한다면, 사유의 정의가 가장 순수하고 논리적이었던것을 생각해보아, 사유가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음을 눈치 챌어야하고 무조건 해야한다. 왜? 스피드를 올려야 하거든

미시적 독해 TIP : 글의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속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예측을 많이 할 수 있는 독해 습관을 길러 뒷문장의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그러니 단계적 등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아래 그림 참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를 것이다.”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고가 바로 모순 인식이다.
(22수능에서만 2번, 헤겔지문, 브레튼우즈, 23 6평 칼숨의 역설)

미시적 독해 TIP : 모순이 나오면 어디서 발생하는지, 즉 모순의 발생 지점을 찾으세요!

위 글에서 모순의 발생 지점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 인지하고 마음 속에 가져가고 글 (나)를 읽자.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 문단은 사실 빌드업을 위한 글이다. 이 문단이 주장으로 읽힌다면, 위에서 말한 미판식 전개를 생각해주도록, 절대 주장이 아니다 근거이며,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주자 헤겔을 비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주면 된다. 그냥

종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정도만 읽으면 된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본격적으로 이 문단을 읽기 위해 하나의 팁을 가져가자

미시적 독해 TIP : 비판하는 문단

비판하는 문단임을 인식했다면, 반드시 결론을 내려두고 읽자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 받을 사람”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깔지 생각해두고,

그 비판하는 근거들을 끼워 맞추어 읽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글 (가)를 읽으면서 표면적인 내용과 이면적인 내용사이의 모순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준 부분이 파란색 문장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예술의 객관성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글 쓰이가 말한 중화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완벽한 종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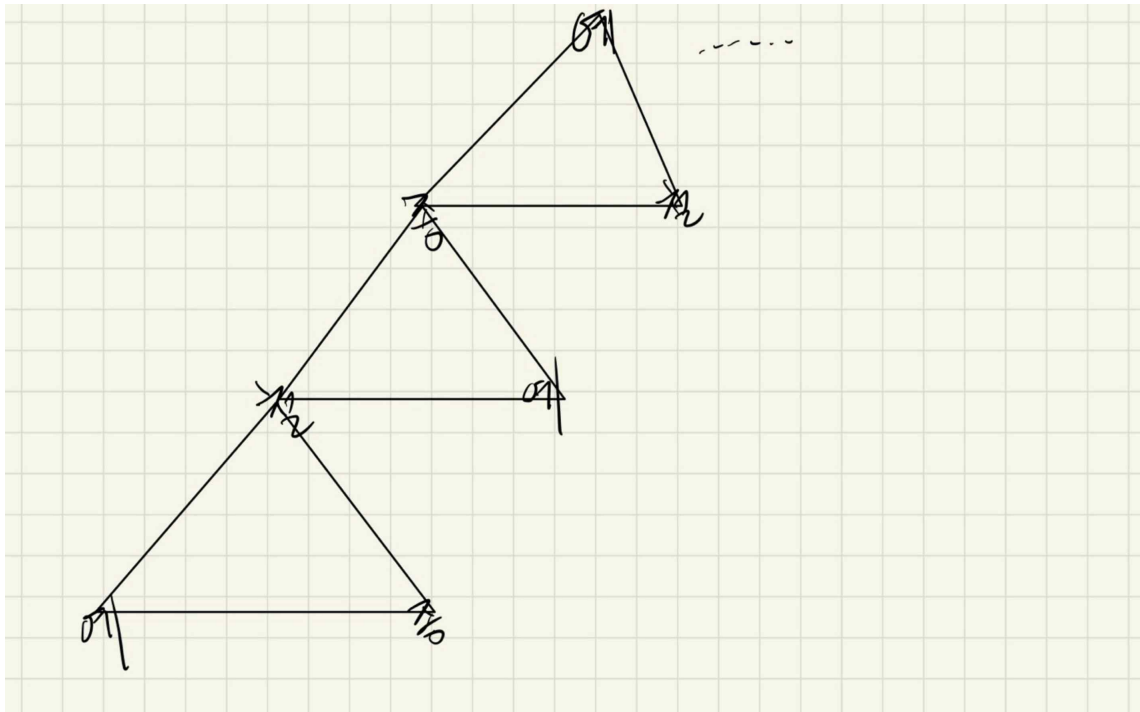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쓴 글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자신의 주장이 전개된다. 저 주장이 바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하라" 이 부분이다.

글쓴이는 지금 완전한 주관성 = 철학이, 재객관화 즉 예술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해를 잘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부분에서 의심점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이 다시 철학 위로 가게되니까 예술의 일방적인 승리로 가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좋은 의문점이고 의심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설을 다음 그림으로 해결해드리겠다



이러한 그림은 이 지문을 통해서만 추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독해방향과 지문의 불친절함이 충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text 그 자체로 두어라

반드시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수능에서도 그 정도만 물어보지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음을 염두하도록 이걸 탐구가 아니라 언어이해라는 국어 공부이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설>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요즘 수능체제에서는 4번문제로 나온다

4번 문제는 반드시 = 추상의 구체화 이다.

“추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1번 선지로 보면

“특정한 철학적 방법” = 변증법

“예술의 상대적 위상” = (가)는 예술의 가치가 쓰레기다 (나)는 예술의 가치가 높다.

이런식으로 추상화된 단어들을 지문에서 구체화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잡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화두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다. 화두를 명심하고 제대로 잡아두자

대립하는 지점!! = 예술의 상대적 위상!

●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해설>

이런 유형은 전반 개념 문제이다.

인문 철학 지문에서 전반 개념 문제는 반드시 정의를 제대로 보도록 하자.

3번 선지만 제대로 해설하도록 하겠다.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 예술 종교 철학

지성의 세가지 형식 = 직관 표상 사유

인식하는 대상 = 이념

이 선지를 해석하면 예술 종교 철학은 이념이다. 이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예술 종교 철학이 이념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이 선지를 왠케 많이 틀릴까?

바로 정의 문장을 보는 습관이다. 반드시 주어 다음에 서술어보도록!

그러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약에 이 지문이 "손은 물건을 잡는 수단이다."

이렇게 쓰여있고

선지에 "손은 물건이다." 라고 나온다면 틀릴까?

아니다. 우리가 인문지문을 못하는 이유는 "낯선 단어"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친숙해 질 수 있게 많이 읽어두는 연습도 하자.

●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 문제는 굳이 해설하지 않겠다. 그냥 정의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대응 해보도록!

●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해설>

비판하는 문제가 나왔다.

아까 비판하는 문단으로 돌아가도되고, 대립하는 지점이 생겼던 그 이유들을 생각해보는 작업을 사전에 해두자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지를 제거하도록 하자 그러면

기준으로 잡을 문장은

“첫번째 단계의 예술이 낮아져서, 두번째 단계의 종교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내면과 표면의 모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잡고 풀면 간단하게 3번째가 나온다.

-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㉔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보기를 읽으면서 느낄 부분은 바로 헤겔이 자가당착, 즉 자기 말에 자기가 모순이 있음을 결국 깨닫게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실상 잘못 나온 문제이다. 왜? 4번문제와 해야할 사고가 똑같거든,

그러니 글쓰기 (나)의 주장이었던, 예술의 가치를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기준으로 잡고

그와 대응 하는 문장을 찾으면

2번일 수 밖에 없다.

2번에서 말하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하는 = 즉 철학을 밑으로 깔고, 그를 바탕으로하는 절대정신(절대정신 중의 하나인 예술이겠지???)

이렇게 된다.

4번선지만 해설 하겠다.

사실 말도 안되는 건데 그냥 지문에서 같은 말있으니까 학생들이 골랐다.

이유 알겠지? 객관성이 사라지면 되겠어? 애초에 중화상태 즉 한쪽의 소멸을 원치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쪽이 뭐가되었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 쉽게 해결이 된다. 제거되었다는 무조건 틀린 선지이다!

비판적 독해 읽는 방법

1. 대립하는 지점을 화두로 잡자
2. 같은말 찾기 (어휘력, 문장구조의 유사성)
3. 거시적 측면의 비판적 독해 구조를 제대로 읽기.